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책을 읽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OECD에 가입된 30여 개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독서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이미 소문이나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책을 읽지 않다가 보니 지식이 너무 부족해 과거의 역사나 인물에 대하여 모르고 지내게 십상이다. 추사 김정희는 그의 학문이 너무 높아 당대의 학자 다산 정약옹에 버금가는 정도였지만, 일반인들은 추사 하면 '추사체'라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지낸다. 다산 정약옹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그가 실학자라고만 알고 있지 '위대한 시인'이어서 2500수가 넘는 방대한 시집을 남긴 분이고, 고대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위대한 음악 이론가였다는 사실들은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호남의 큰 학자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1668~1715)가 있다. 해남 윤

공재 윤두서의 학문과 그림

씨 가문의 후예로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인데, 다산 정약옹의 외증조부로 조금 알려진 분이다. (아마도 공재의 유전자가 다산에게 전해졌으리라) 공재의 손녀가 바로 다산의 어머니 해남 윤씨였으면 외가 증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산은 자기 집안도 기호지방 남인의 명문가였는데, 자신의 글 곳곳에서 자신의 외가인 해남 윤씨가 호남의 명문남인가였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술했는데, 거기에는 고산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에 못지않은 학자가 바로 공재 윤두서라면서 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공재는 우리도 알고 있는 분이다. 다만 그는 조선 3재라 해서 겸재·현재·공재의 3대(大) 화가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 물론 공재는 그의 아들 낙서 윤덕희(尹德熙)와 그의 손자 창고 윤용(尹裕)과 함께 3대(三代) 화가로도 크게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역시 지식 이 짝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재의 그림 솜씨를 특출했는데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지만, (그의 자화상은 국보로서 이미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솜씨는 여기(餘技)에 지나지 않고 성현(聖賢)의 자질을

지닌 뛰어난 학자였다는 것이다. "공재께서는 성현의 자질을 타고나시고 호걸의 뜻을 지니셨기에 저자하신 것(일본 지도)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니다. 애석하게도 시대를 잘못 만났고 수명(48세)까지 짧으시어 끝내 벼슬도 못하고 세상을 마치셨습니다. 내외(內外) 자 손 중에서 그분의 피를 한 점이라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뛰어난 기상을 지니고 있을 터인데 역시 불행한 시대를 맞아(남인이 몰락한 시대) 변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남긴 원고와 글씨 중에는 후세에 알려질 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 안방 다락에 깊이 숨겨진 채 쥐가 깊어 먹고 썩어 슬퍼도 구제해 낼 사람이 없으니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중형 약연에게 보낸 편지, '후배지에서 보낸 편지') 공재에 대한 사모의 정이 얼마나 간절한 다산의 편지인가. 그러면서 다산은 당대의 석학들이 성호 이익, 그의 형들인 서산 이잠, 옥동 이서 등의 뛰어난 학자들을 비롯해서 공재와 그의 형 현파 윤홍서(尹興緒:1662~1733) 등이 힘을 합쳐 조선 후기의 경학(經學)과 실학(實學)의 선구적인 업적을 이룩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

재는 화가로서만이 아닌 뛰어난 학자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학자에 대하여 학문적 업적이나 그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은 모두 후학들의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근래에 미술사가들의 노력으로 공재의 일생에 대한 글이 많이 책으로 간행되었다. 책을 읽지 않는 악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산·공재·추사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아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책을 읽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마음이 지나야 한다. 공재는 아들 복이 많아 아홉 명의 뛰어난 아들을 두었다. 큰 아들이 덕희(德熙), 그 다섯째가 덕렬(德烈)이니, 바로 다산의 외조부였다. 옛날의 역사나 인물에 대하여 알지 못해도, 돈만 많고 권력만 높으면 잘났다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도 인간의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려면 옛날의 역사나 인물에 대하여 대강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독서를 하라고 권장해 마지않는다. 그래야 교양 있는 사람대접을 받게 된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흔히들 사용한다. 변호사인 필자 또한 이와 같은 말을 사건 당사자 본인과 그가쪽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듣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항상 불편함을 느낀다. 사람을 산다는 표현은 사람을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으니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느낌도 들기 때문이다. 물론, '사다'의 사전적 정의에는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부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이 어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법률 관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의뢰인이 어떠한 시각으로 변호사와 관계를 맺느냐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소송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서 주장과 입증에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닌 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가 궁금해 하고 묻는 내용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샀으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해 줘야 하는데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법률 관계는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위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로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소송 사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 사건 의뢰에 대하여 수입자로서 그가 통상 소유하고 있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풍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가는 사건 내용 및 범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입증을 할 의무,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소송 수행에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 관계 형성은 절대적이다.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답답지 않은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감나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과거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사명을 충실함은 물론, 법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는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임을 새겨본다.

기고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백석대 교수

'내가 쓰러지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이것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평온하면서 품위 있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원하는 친정어머니께서 유언을 에둘러 표현하신 것이다. 바로 웰다잉을 실천하시고자 함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제명대로 살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다'는 고종명(孝終命)을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후덕(攸好德)과 함께 오복(五福) 중 하나로 여길 만큼 존엄한 죽음을 염원했다. 고종명이 곧 웰 다잉(well-dying)이었다. 그리고 보면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첨단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달은 100세 시대를 가능케 해 장수의 복은 누리게 됐으나, 아이러니 하게 집에서 편이 숨진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15.3%에 불과하고 74.9%는 병원에서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학적 치료가 역설적으로 존엄하고 품위 있는 마무

웰 다잉(Well-Dying)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리를 막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는 잘사는 것(well-being)에만 전력을 다하고 잘 죽어가는 것(well-dying)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거나 외면함으로써 당하는 죽음이 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법국가적으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올해 2월부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연명 의료 결정법'(웰다잉법, 존엄사법)이 시행됨으로써 존엄하고 품위 있는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연명 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명 의료 계획서(의사가 작성) 등록자도 33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 연명 의료 유보 및 중단을 실행한 사례는 5801건에 이른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연명 의료란 치료 효과가 없는 데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작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의 행위를 말한다. 웰 다잉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다. 이것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병원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랜 문화로 정착되었다. 최근에 그 구분부 LG그룹 회장도 연명 의료를 거부하고 가족에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더구나 장례마저 소탈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떠나셨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가 '잘 죽는 방법을 알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한 것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귀결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준비한다. 이틀테면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여행 준비 등. 그러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심각한 생명 경시 현상으로 자살과 타살이 날로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무관심과 부정으로 돌아보지 않았던 죽음 준비 교육을 각 발달 단계에 맞게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죽음준

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주어진 삶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영위하고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평소 정리하고 준비하고 화해하는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처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인사와 소유하신 모든 것 각막까지도 기증하고 특수 처치를 위해 중환자실에도 가지 않고 평온하게 수명을 다한 모습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대한웰다잉협회는 삶과 죽음을 양극적인 사고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선상에서 이해하며, 아름다운 마무리(well-dying)를 통해 아름다운 삶(well-living)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으로서 서울 경기를 비롯 전국 69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광주 지역에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 서구지회가 개설됐다. 무척 반갑고 기쁜 일이다. 많은 분들이 광주 지역에서 건전한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은 물론 자신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당신이 아직 건강한 바로 지금이다.

社說

‘실무형 인수위’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지방 선거가 끝나면서 단체장이 바뀐 광주·전남 지자체의 민선 7기 인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향후 4년간 행정을 이끌어 갈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는 만큼 구성과 운영 계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전통적인 인수위 대신 '광주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을 임명했다. 이 당선인은 엇그제 기자회견에서 "광주혁신위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활동에서 벗어나 미해결 현안들의 해법 모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 공항 이전,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혁신위는 7개 분과에 23명으로 구성됐다. 김영록 전남 지사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를 대신해 소규모 취임 준비 기획

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이 전남도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지사까지 지내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실무형 기획단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관철 동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은 도정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임의 기구로 지워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과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포함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점령군 행세'로 논란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 민선 7기 출범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산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애매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전남도 인수위는 광주·전남의 향후 4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바른미래당의 정치 실험

광주·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수렁에 빠졌다.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를 비롯해 텃밭으로 여겼던 광주·전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광역·기초 의원 등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애초 지방 선거 선전을 목표로 추진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이었으나 참담한 실패를 맛보면서 좌표마저 상실할 정도가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낀 '원내 3당'의 한계를 끝내넘지 못한 것이다. 양당의 정체성이 섞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제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의 사퇴로 대표 권한대행직을 맡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40대 이하의 '젊은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화학적 결합과 정체성 확립을 당면 과

제로 내세웠다. 비대위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연 뒤 내일부터 1박2일로 경기 양평 용문산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계는 중도개혁, 바른정당 계는 보수 혁신을 주장하고 있어 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경우 '보수'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치러질 정당대회 과정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한 이념 노선이 재검토될 경우 다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8월 중에는 정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적 쇄신 없이 당 지도부 교체만으로 갈등 봉합에 나설 경우 '도로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대의 정치가 기본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 당연히 보이지만, '1인 1표'는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가치와 자격 그리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리라는 "현대 자유주의는 세 가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첫 번째 위협은 인간이 알고리즘(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세기에서 군대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군인을 필요로 했으며 경제도 수백만 명의 건강한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의 발달로 기계가 공장 노동자와 전쟁터의 군인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자와 군인이 뒤편으로 밀려나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 집단은 쓸모없는 가난뱅이 대중에게 더 이상의 정치적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하리리의 지적이다.

인공 지능과 투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탈산업화와 정보화가 급급치를 올리면서, 지구촌의 대세로 자리 잡은 '정치적 평등'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평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온 '투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1인1표'가 먼 미래에도 지속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생산 수단과 군사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하리리의 지적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치부될 뿐이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상을 생각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역사의 주동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류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의 해체'라는 또다른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독료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